‘부석사 불상’은 ‘쓰시마 불상’이 아니다

현불논단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647년 만에 고향인 부석사로 돌아가 이운·봉안됐다. 봉안 후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까지 100일간 머물며 불자와 지역민에게 인사를 나눴다. 불상 이운 소식은 1월 16일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보도는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였다. 불교계와 충남지역 언론은 647년 만에 서산 부석사로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왜 647년만인가에 대해 1378년 9월 천수만을 거쳐 부석사, 풍전역, 서산 관아까지 왜구에 의해 침탈당한 시기를 불상 약탈의 시기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2년 9월 ‘고려말 왜구의 침탈과 서산 부석사불상과의 상관성 세미나’에서 중세가 연구가 이영 교수 등이 ‘고려사’ 등에 기록된 서산 지역의 5차례 침탈 가운데 침탈 경로, 인근 피해 상황 등을 기록한 사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얻는 결론이다.

봉안위는 2013년 3월 발족 이후 ‘서산 부석사 불상’ 토론회 등을 12차례 이상 진행했고, 대마도 방문 조사를 6차례 하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불교계와 지역 언론은 왜구 약탈 사실과 함께 647년만에 고향에 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에 교토 통신, 산케이 등이 보도한 기사는 대부분 ‘쓰시마 불상’이라고 표기하면서 ‘간논지(觀音寺)와 소유권 인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서산 부석사에서 1월 24일 친견법회를 연다’는

서산 부석사 불상 647년만에 귀환
日언론 ‘쓰시마 불상’ 표기 안될 일
부석사-간논지 흉금 없는 대화 필요

내용은 일본이 ‘용인한 결과’라고 다뤘다.

일본 언론이 ‘쓰시마에 있던 불상’이 아닌 ‘쓰시마 불상’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쓰시마 불상’이라고 하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대마도에는 있는 87점의 ‘조선 불상’ 중에 제작 내력이 밝혀진 것은 서산 부석사 불상이 유일하다. 이런 이유로 1978년 발간한 〈대마의 미술〉에서는 서산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에 온 이유로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래(請來)”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2012년에 있었던 쓰시마에서의 불상 도난 사실만 부각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상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다. 역사가 부정당하면 ‘유산’이 아니라 ‘물건’일 뿐이다.

2016년 7월, 2023년 2월, 2023년 10월 3심을 거친 소유권 재판에서 판결의 공통점은 서산 부석사가 원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왜구 약탈의 상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향후 불상의 원상회복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 100일 친견 법회 후에 대마도로 돌아가는 관세음보살좌상을 무인사찰인 간논지에 다시 안치할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10년 동안 간논지의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 수차례 방문 모니터링 결과이다. 이로 인해 2022년 대마시립박물관이 조성되면서 박물관에 기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에서 박물관은 도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탈품’의 존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서산 부석사와 간논지가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간논지가 재판 과정에서 ‘부석사의 동일성’을 부정했던 것은 사과해야 한다. 서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던 것을 할 수 있던’ 세상이 되길

세간과 출세간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연말연시를 휘몰아치는 겨울바람 소리가 유독 ‘을씨년스럽다.’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직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 성난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등등을 빗대 애써 골라본 단어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리지만, 달갑지 않은 뉘앙스의 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을씨년스러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우리를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기분이 아닐까 싶지만, 뭐 어떻든.

그런 밖의 일들과는 무관하게 음력 설날 즈음이면, 한 해 동안 내가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결심하는 나만의 오랜 습관이 있다. 언제나 그렇듯 연말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자책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연초에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는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일 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해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은 왜 그렇게도 많은지. 나의 경우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고유 활동영역인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남들보다 더 잘하거나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어깨를 짓누른다. 좋은 강의를 해야 하고, 좋은 글을 써야 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어제 잘 살지 못하면 오늘 없기에
연초, 우린 여러 새해 계획 세운다
당연히 누렸던 것 누리는 한해 기원

그러다 보니 나는 늘 남들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았다. 아니 내가 남보다 더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 같기도 하다. 나보다 강의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은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정년퇴직할 무렵이 다되어서야 어떤 작은 깨달음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서 행복한 사람도 많지만 나보다 못나서 불행한 사람도 적지 않다는, 아주 평범한 가르침을 얻게 되었던 것. 그렇다면 나의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남들보다 행복하기보다는 남들보다 불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제대로 바로 보자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한 것은 무한경쟁의 영역이지만, 남들보다 불행하지 않은 것은 오롯이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던가.

연초에 이런 소박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제를 잘 살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일이다. 그래서 올해 나의 한해 다짐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 없이 행복하겠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경험상 이런 단순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라도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던져보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오늘보다 2024년 12월 3일 이전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던가. 일상의 위대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하긴 말을 해놓고 보니 조금 씁쓸하기는 하다.

社 說

선명상 대중화, 국민운동으로 확대되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이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치유·평안·화합을 기치로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약 18분간 진행된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주요 종책 과제로 제시했다. 당장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국제선명상대회를 올해에도 개최해 한국불교 전통의 수행문화 계승 및 정체성 함양과 우리나라의 명상 인프라를 총결집하는 계획이 인상 깊다.

또한 세계인에게 선명상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국내와 명상전문가를 초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서울 성북구 안암동 중앙선명상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중앙선명상센터는 도심 속에서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조성해 선명상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선명상 보급의 중추가 될 전문 지도인력을 양성하고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 3원 체재에서 1원 체재로 전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도 크다. 특히 진우 스님이 스스로 “전법은 총무원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전법 활성화가 조직 개편을 통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주목된다. 실제 조계종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이 쉽게 종단 활동에 참여하고 사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승가교육 시스템도 일신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교육부터 승가기본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도입해 산중에서도 양질의 교학을 학습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친된다.

문화를 통한 전법을 위해 4~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로 만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힙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불교박람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국제선명상대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연등회를 연달아 배치해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조계종의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에 조계종의 이 같은 종책 계획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선명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합하게 한다는 진우 스님의 계획은 대승불교의 기치인 ‘자리이타(自利利他)’와 맞닿는다.

포교·전법이 한국불교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탈종교,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를 넘는 것은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의 사람들은 자신의 니즈를 충족 시켜줄 때 비로소 종교의 문턱을 넘는다. ‘선명상’은 그 문턱을 넘게 하는 방편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전법에 종단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진우 스님은 기자회견에 이렇게 약속했다. “2025년 한국불교는 지난겨울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이 보여줄 ‘따뜻한 봄’이 기대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월 2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1월 2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